

2010년
4분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
동향분석보고서

2011. 04

한국콘텐츠진흥원



KOREA
CREATIVE CONTENT
AGENCY



2. 2010년 4분기 콘텐츠산업 분야별 분석 및 전망

2.3. 음악(공연)산업 분석 및 전망

□ 매출부문

- 음악산업의 '10년 4분기 매출규모를 살펴보면 약 851,060억원이며 음악 상장사 매출액 비중은 17.9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상장사 매출액 분석을 살펴보면 '10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19.8% 성장하였고 전분기대비 10.7% 상승하였으며 CBI 분석 결과 4분기 96으로 다소 호전된 상황임

□ 수출부문

- 음악산업의 '10년 4분기 수출규모를 살펴보면 약 285억원이며 상장사 수출액 비중은 11.4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상장사 수출액 분석을 살펴보면 '10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-47.5% 하락하였으며 전분기대비 -74.4% 하락했으나, CBI 분석 결과 4분기 96으로 호조를 보임

□ 고용부문

- 음악산업의 '10년 4분기 고용규모를 살펴보면 77,756명이며 상장사 고용 비중은 1.4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상장사 고용 분석을 살펴보면 '10년 3분기 전년동기대비 20.0% 증가하였으며 전분기대비 0.9% 상승하였으며 CBI 분석 결과 4분기도 92로 호조임

□ 음악산업 2011년 1분기 전망

● 음악산업 '11년 1분기 매출CBI는 103으로 호조될 것으로 예상됨.

- 음악산업은 2010년 이후 걸그룹의 활발한 아시아 진출과 함께 남성 아이돌 (빅뱅, 2PM) 그룹의 해외진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, 또한 일본 내에서 K-POP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지속되고 있음. 2010년에는 특정 뮤지션에서 국한되었다면, 2011년부터는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도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
- ‘드림하이’와 ‘시크릿 가든’ 등의 OST의 음원판매의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, 이로인해 음악산업의 OSMU가 확대되고 있음. 이러한 제작형태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
- 뮤지컬 시장은 2010년 하반기까지 부진을 면하지 못하였으나, 2011년 부터는 국내 대형 창작 및 라이선스 제작이 확대되어 매출의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됨. 한류스타들이 참여한 뮤지컬(지킬엔 하이드 등) 작품들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관객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
● 음악산업 '11년 1분기 수출CBI는 115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됨

- 일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뮤지션과 아이돌 그룹이 태국, 베트남 등 아시아시장으로 확대 되고 있으며, 태국은 동남아 한류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.
 - ※ 2011년 3월에 출범된 CJ E&M은 한류음악 활성화를 위해Mnet 을 동남아시아지역에 추가 설립할 예정임
- 국내에서 성공한 일부 대작 뮤지컬(맘마미야, 영웅 등)을 중국, 미국 등 해외 지역 진출이 예정되어 있어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
 - ※ CJ E&M는 중국 문화부 산하 중국대외문화집단공사 등과 “이주연창문화발전유한공사”설립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2011년 6월 뮤지컬 “맘마미야”를 선보일 예정임

- 음악산업 '11년 1분기 고용CBI는 93로 호조될 것으로 예상됨
 - 2010년 하반기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음악산업은 과거 음반제작 중심의 인력이 아닌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공연(콘서트, 뮤지컬 등) 등과 OSMU 확대
로 종사자수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